

# 로댕 갤러리 : 전시관과 전시물

## A Study on the Rodin Gallery : Pavilion and Exhibit

이 광 인\*  
Lee, Kwang-In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pavilion and exhibit in Rodin Gallery. Rodin Gallery is intended to accommodate *The Gates of Hell* and *The Burghers of Calais*, two masterpieces by the French sculptor Auguste Rodin. In order to retain Rodin's intent, the museum designed by KPF is constructed primarily of glass, which maximizes natural light and minimizes shadows. Thematically, the Glass Pavilion was designed to provide a place of relaxation in a highly urban environment.

키워드 : 로댕갤러리 , 전시관 , 전시물, 지옥의 문, 칼레의 시민

keywords : Rodin Gallery, Pavilion, Exhibit, The Gates of Hell, The Burghers of Calais

### 1. 들어가는 말

태평로는 수도 한양의 역사가 스며있는 곳이다. 지금은 역사의 흔적이 많이 사라지고 시대의 흐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되었지만, 거대한 빌딩들 뒤쪽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골목들에서 옛 수도의 모습이 그려진다. 변모된 태평로를 보고 있노라면 어떤 도시의 프로그램도 연상하기 어렵다. 건축물들이 개별적으로 늘어서 있을 뿐, 거리에는 색다른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무색무취의 도시맥락에서 지난 1998년 초에 광화문에서 승례문에 이르는 태평로의 일부가 새로운 얼굴로 우리를 맞았다. 건물 세 동(삼성생명, 삼성본관, 태평로빌딩)을 잇는 짧은 거리이지만, 보도의 높이가 통일되고 일관된 가로디자인으로 조성된 것이다.

이 거리는 삼성생명빌딩 앞에 신축된 로댕갤러리의 글래스 파빌리온에서 클라이맥스를 맞는다. 1999년 5월, 이 로댕갤러리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개관하였다. 로댕갤러리는 근대조각의 거장 오귀스트 로댕의 대표작 '지옥의 문(The Gates of Hell)'과 '칼레의 시민(The Burghers of Calais)'을 상설전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다. 얼핏 보아도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었을 법한 이 건물이 로댕의 두 작품만을 위해 세워진 것이다.

로댕갤러리는 우리에게 크게 두가지 의문점을 던져준다. 첫째는, 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면에서는 적절한 조명, 온도, 습도유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런 점에서 유리재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댕갤러리는 건물전면(지붕, 벽, 천정)을 유리재

료를 사용하여 건축되었는 바, 그 배경과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술관 건축에 있어서 로댕갤러리 경우처럼 전시품이 먼저 확정된 후에,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맞춤형 전시관을 설계하는 사례는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니다. 로댕갤러리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와 동시에 작품이 놓일 위치가 결정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건축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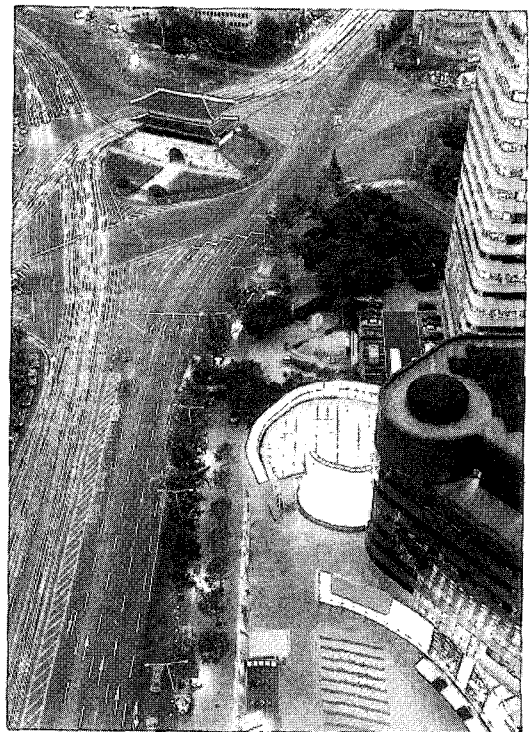


그림 48) 로댕갤러리 전경

\* 정회원, 두원공과대학 건축디자인과 조교수

와 공간이 설정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는 로댕갤러리의 건축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로댕갤러리의 건축적 형태와 공간구성이 그곳에서 전시되는 로댕의 작품들과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전시관과 전시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글래스 파빌리온

로댕갤러리 건립은 삼성본관 주변 리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바,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태평로 일대에는 십여년의 간격을 두고 건축된 삼성계열의 대형 건물 세 동이 나란히 들어서 있다. 그 세 건물 중에서 중앙에 서 있는 삼성본관은 70년대 수출 입국의 선두주자였던 삼성물산의 사옥으로 76년에 완공되었다. 삼성본관은 당시로 봐서는 유래가 없던 초대형의 사무용 건물이라는 점, 첨단 PCCW (Precast Concrete Curtain Wall)공법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한껏 받았던 건물이다. 삼성본관 양 옆으로는 84년에 완공된 삼성생명 본사사옥과 97년에 완공된 태평로빌딩이 나란히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인접해 있는 이 세 건물은 각각 십여년의 차이를 두고 건축된 까닭에 건물간의 상호연계성이 떨어지고, 건축재료와 디자인의 차이로 외관상 통일감을 전혀 갖지 못했다. 게다가 이 건물들의 외부공간은 차량 위주로 구성되어 건물 이용자나 주위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또한 기존시설이 업무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러한 업무시설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용이 제한되어, 일반 시민들은 기업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게 되며 매우 낮은 곳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따라서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기업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환경 정비 및 개선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삼성본관 주변

리노베이션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사업의 주요목표는 미래지향적인 첨단 기업이미지를 구축하고, 업무·휴식·쇼핑·문화의 복합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개방적이고 친근감있는 시설과 공간계획으로 도심의 명소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상 저층부 및 옥외공간에는 기업전시장·로댕갤러리·열린광장·포켓파크·타임파크 등을 계획하였고, 지하부에는 쇼핑공간을 배치하였다. 시설계획은 지상부와 지하부에 설치되는 시설의 성격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공동설계로 진행하였으며, 지상부 설계는 현대적인 고층 오피스 건물 설계에 뛰어난 실적을 갖고 있는 KPF(Kohn Pedersen Fox Associates), 지하부 설계는 창의적이고 주제성이 강한 대형 복합 상업시설 설계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JIP(Jerde Partnership)에서 담당하였다.

개방적이고 첨단의 기업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KPF에서 제시한 해결안은 유리커튼월의 도입이었다. 유리커튼월은 건물내부에 더 많은 빛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유리재료 자체가 갖는 투명한 성질로 말미암아 건물 내외부간의 시각적인 연계를 통해 친근감을 주며, 스테인레스 스틸의 금속재와 함께 사용되어 현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유리커튼월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알루미늄 샷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대신, 유리에 구멍을 뚫고 피팅(Fitting)만을 사용하여 유리를 고정하는 DPG(Dot Point Glazing)공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리커튼월을 삼성본관과 주변의 두 건물에 반복 사용함으로써 건축재료와 외형상의 일관성을 통해 전체가 조화롭고 통합된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로댕갤러리 건물전면에 걸친 유리재료의 사용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로댕의 두 작품은 야외에 놓일 것을 전제로 제작된 작품이다. 삼성문화재단은 그들이 매입한 로댕의 두 작품을 삼성본관 앞 광장에 놓으려 했으나, 공해를 비롯한 외부의 영향으로 작품이 손상될 것을 우려하여 이 갤러리의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야외에 놓여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막'을 만들었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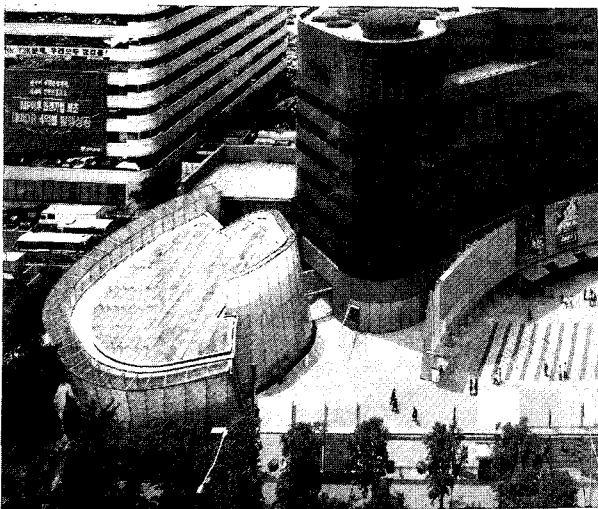


그림 2) 로댕갤러리와 삼성생명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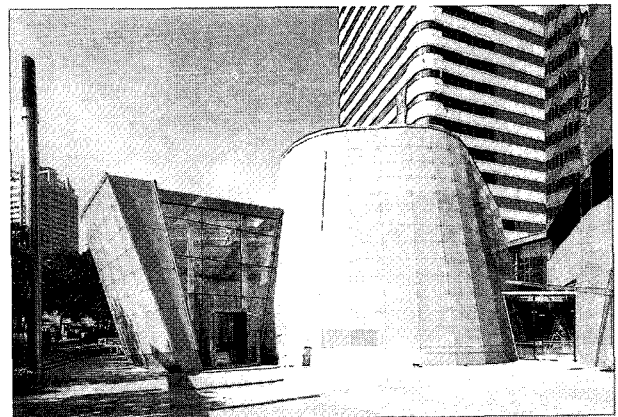


그림 3) 로댕갤러리 정면

이 '문화의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지... 그나마 야외용 작품이라는 점을 적극 건축에 반영, 자연광을 그대로 실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건물 전면을 유리로 제작하였다는 점이 위안이 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설계자 Kevin Kennon은 "로맹의 두 작품들은 야외에 전시될 것으로 제작되었지만, 서울 도심의 기후조건과 대기상태를 감안해 볼 때 보호막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조각가의 본래 의도에 부합하고자 유리를 주재료로 사용 함으로써 자연광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그늘지는 것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건물의 외벽과 천정에 반투명 처리된 유리를 사용하여 건물전체가 열린 구름과 같이 느껴지게 함으로써, 전시된 조각품이 마치 구름속에 떠 있는 효과를 의도하였다.

### 3. 건축적 형태와 전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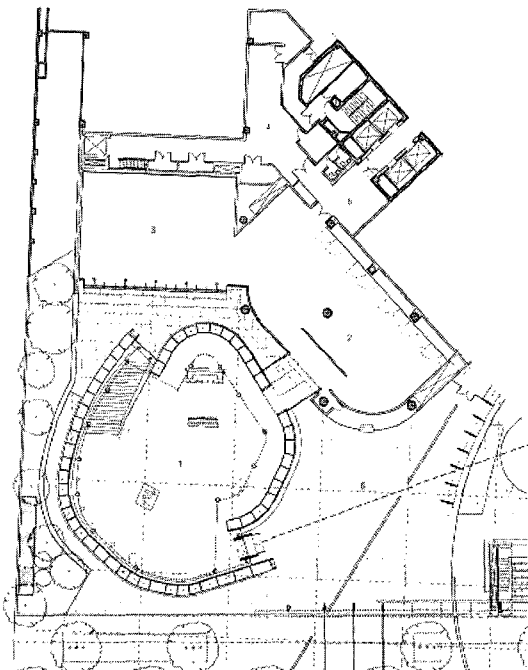
삼성생명빌딩 1층 전면에 세 개의 전시실로 구성된 로맹갤러리에서 건축적 관심을 끄는 것은 유리벽으로 에워싸인 글래스 파빌리온이다. 서로 다른 각도로 기울어진 이중 반투명 유리벽이 삼성생명건물과 대조되는 공간구성과 건축어휘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맹의 명작을 담은 이 건물은 KPF에서 디자인하였다. 대형 상업빌딩을 주로 설계해 온 KPF로서는, 본 프로젝트가 작지만 그들

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다.

건축의 독자성을 추구하는 건축가에게 가장 매력있는 대상은 단연 주택과 미술관일 것이다. 주택이 가장 보편적인 일상의 삶을 담아내고 미술관이 그 사회의 문화적 잣대가 되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도 건축가가 여기에서 비로소 자유로운 건축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더구나 조각은 그림과 달리 관조적인 거리를 허락하지 않는 삼차원의 시각예술이다. 멀리서 가까이에서 혹은 그 주위를 맴돌면서 조각은 체험되고 심지어 촉각에 호소되기도 한다. 로맹의 두 대표작이 한 지붕 아래에 놓이는 공간을 위해 두 작품이 지닌 팽팽한 흡인력과 인장력, 이에 다가갈 사람들의 상반된 움직임의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건축을 시작한다는 것이 건축가에게 얼마나 매력있는 작업일까? 더구나 로맹의 조각품만을 위해 한 국가의 간판기업이 쏟아 부은 막대한 돈과 의지가 건축가에게는 희열이자 부담이었을 것이다. 설계사무소 역사상 최단기간내에 최고의 사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작품성의 부재'라는 비평을 의식해야만 하는 KPF로서는 로맹갤러리는 어떤 고층건물과도 맞바꿀 수 없는 호기였을 것이다.

로맹갤러리의 건축적 특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앞서 그곳에 전시될 작품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먼저 로맹의 두 작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갈레의 시민'과 '지옥의 문'을 의뢰한 것은 프랑스 정부였다. 1871년 프로이센 전쟁에서 프랑스를 침입한 독일은 빌헬름1세의 황제즉위식을 베르사이유궁전에서 거행한다. 그 후 프랑스의 조각은 쇠퇴하는 애국주의를 선동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공화정시대의 갈레 역시 500여년 전의 치욕적 사건을 기념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었다. 로맹이 11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갈레의 시민'은 음악과 춤, 행진과 연회속에서 제막되었다. 조각이 놓여질 자리는 당연히 일상의 삶에 가까이 있어야 하는 갈레의 리슐리외 광장(Place Richelieu)이었다. 로맹이 죽을 때까지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지옥의 문' 역시 파리장식미술관(Musee des Arts Decoratifs)입구의 청동문으로 쓰여



42

그림 51) 1층 평면도



그림 52) 갈레의 시민

질 것이었다. 로댕은 자신의 작품 에디션(Edition)의 제한 규정을 작성하여 사후 제작을 인정하였다. 청동조각은 흙으로 만든 조각의 영구보전을 위해 원형의 거푸집을 만들고 청동을 부어 제작하는 것으로, 한 거푸집으로 여러 번 주물을 떠낼 수 있다. 삼성문화재단이 소유한 '지옥의 문'은 7번째로 떠낸 작품이고, '칼레의 시민'은 12번째로 떠낸 작품이다.

백년전쟁이 계속되고 있던 1347년 8월 3일, 영국군의 공격 앞에 프랑스의 항구도시 칼레는 무릎을 꿇는다. 영국왕 에드워드3세는 프랑스 칼레의 시민지도자 여섯 명에게 밧줄을 목에 매고 맨발로 칼레의 열쇠를 바치게 명령한다. 항복의 공포와 굴욕에 잠겨있는 군중을 헤치고 이들은 시장에서 출발하여 영국군 진지를 향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내딛는다. 우스타쉬 드 생 삐에르(Eustache de Saint-Pierre)는 죽음의 공포보다 앞으로 견뎌내야 할 고난을 생각하며 머리를 숙이고 눈을 반쯤 감은 채 걷는다. 그의 왼쪽에 열쇠를 잡은 장 데르(Jean d'Aire)는 영국왕 앞에서 당할 굴욕을 생각하며 몸이 굳는다. 절망감에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진 앙드리외 당드르(Andrieus d'Andres)가 그를 따른다. 그의 오른쪽에 순교를 달갑게 받기를 결심한 자끄 드 비쌍(Jacques de Wissant)이 성급히 걷고, 그의 동생 삐에르(Pierre)는 끔찍한 악몽을 내쫓는 듯한 몸짓을 한다. 이들 중 가장 젊은 예한드 피엔느(Jehan de Fiennes)가 바빠 앞사람을 따른다. 칼레의 항복 후 500여 년이 지난 1895년, 오귀스트 로댕에 의해서 재현된 조각 '칼레의 시민'의 모습이다.

로댕은 여섯 명의 칼레시민 행렬을 나선형으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주인공을 피라미드의 정점에 두고 나머지를

그 밑에 앉히는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한 것이다. 주인공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 나선형의 패적에 선 한 사람에 불과하다. '칼레의 시민'을 에워싼 현대의 군중으로서의 우리들 역시 이 조각상들의 지치고 절망한 얼굴표정, 손동작, 몸짓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천천히 때로는 빨리 그 주위를 몇 바퀴씩 맴돌아야 한다.

'칼레의 시민' 저편에 서있는 '지옥의 문'은 사뭇 다르다. '칼레의 시민'의 소재가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하였다면 '지옥의 문'은 단테의 '신곡'중 '지옥'이라는 가공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전자가 실물보다 큰 환조인 반면 후자는 200여명의 군상이 모여있는 부조이다. 전자의 주인공들의 고통이 패배의 굴욕 때문이라면 후자의 고통은 육욕과 탐욕에 대한 죄악 때문이다.

욕망과 쾌락, 절망과 공포, 고통 등 인간의 회로에락을 나타내는 다양한 군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옥의 문'은 지옥에 떨어지기 전 고뇌하며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이 위쪽 텅과늬에, 지옥에 떨어지는 인물이 아래쪽에 묘사되어 있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유사한 구성을 보인다. 200여 개에 달하는 여러 인물상들은 각각 독립적인 조각작품으로도 유명하며 특히 '생각하는 사람', '세 명령', '여순교자'는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중앙에 자리잡은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 전체 구성의 중심이자 작품을 지배하는 형상으로, 시인 단테의 모습임과 동시에 로댕의 정신적인 자화상이며 사유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상부 중앙의 '세 명령'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해매는, 혹은 이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명령들을 표현한 작품으로 '신곡'중 '이 문은



그림 53)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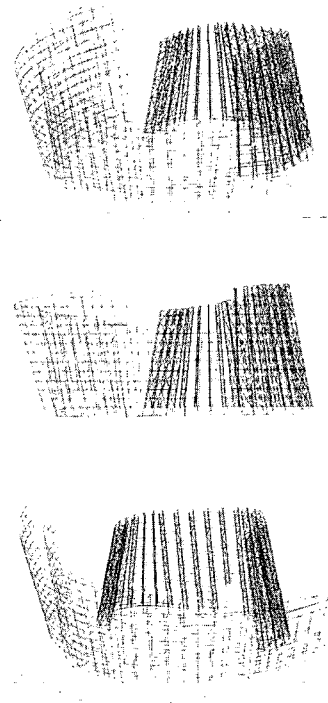


그림 54) 개념도

로 들어서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라는 구절을 형상화하였다. 세 개의 동일한 인물 조각을 왼손을 구심점으로 반복하여 병치한 '세 망령'에서 인물표현에 관한 로맹의 독자적이고 현대적인 조형 감각이 엿보인다. '여순교자'는 '지옥의 문'에 여러 모습으로 등장하는 순교자를 좌대 없이 누워있는 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종교적이라기보다 관능적인 열정에 빠진 듯한 모습으로 구현되어 있다.

현재 '갈레의 시민'은 글래스 파빌리온의 중앙에, '지옥의 문'은 가장자리에 얹혀져 있다. 이로써 두 작품의 구심성과 전면성을 설득력있게 건축공간화하고 있다. 이것은 환조와 부조, 나선형 구조와 사각 프레임으로 된 '갈레의 시민'과 '지옥의 문'이 가지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토대로 설정된 것이다. 로맹갤러리 글래스 파빌리온은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암묵적으로 동적공간과 정적 공간으로 양분화되어 있다. '갈레의 시민'이 놓인 동적공간쪽으로 관람동선이 유도되어 있고 유리벽이 바깥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 삼성생명빌딩과 거의 맞닿아 있는 '지옥의 문'쪽은 유리벽이 거의 수직을 유지하는 정적 공간으로 마무리된다.

건축주 삼성문화재단은 로맹갤러리의 무정형적인 두 벽의 모티브가 손을 형상화한 로맹의 작품 '성당(The Cathedral)'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갈레의 항복자나 지옥의 문에 걸터앉아 있는 '생각하는 사람(The Thinker)'처럼 근육이 넘쳐나는 남성적인 손이 아니라 부드럽게 포개어진 여성스러운 손이다. 로맹이 의미하는 '성당'은 외피가 지니는 힘찬 외형이 아니라 기독교적 신앙을 대신하는 조용하고 충만한 공간이다. 그러나 KPF의 Kevin Kennon은 디자인 의도를 다르게 설명한다. 그는 우선 '성당'의 두 손을 로맹의 작품 중 가장 진부한 조각으로 일축한다. 로맹갤러리의 형태를 남자무용수는 가운데 서고 여자무용수가 그의 주위를 도는 전통발레의 동작 빠드두(pas-de-deux)에서 착상했다고 한다. 다른 각도와 높이로 서있는 두 유리벽은 중심성과 회전성을 각기 표현한다는 것이다. Kevin Kennon은 "설계는 미술관이 소장하게 될 두 역작, 즉 '지옥의 문'과 '갈레의 시민'의 공간적, 과정적 특징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발전되었다. 로맹의 가장 평범한 조각작품들 중 하나를 묘사하는 것보다, 로맹갤러리 건축은 그 작품의 제스처나 동작과 더 관련이 있었다. 두 개의 자립벽은 두 조각작품의 위치에서 유래하는 '2인무'를 형성하고 있다. 벽 하나는 '갈레의 시민'의 나선형 구조와 관계가 있으며 다른 벽은 '지옥의 문'의 상황과 관계있다. 따라서 축모양을 하고 있는 한 벽은 관람자를 입구로부터 '갈레의 시민'을 지나 계단 아래로 이끌면서 움직임의 강조하는 유동성을 보인다. 반대로 또 다른 벽은 '지옥의 문' 뒷면에 절정을 이루는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보다 정적으로 변화한다."고 설계의도를 밝히고 있다.

건축주와 건축가의 설명에는 흥미로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건축형태가 내포하거나 지칭하는 어떤 대상을 설정하는 유추(analogy)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

적이다. 대리석과 유리로 매끈하게 포장된 모체(삼성생명빌딩)에 붙어 있는 파격적인 형태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를 극대화해야 하는 건축주나, 자신의 건축어휘에 논리를 세워야 하는 건축가 모두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Kennon이 설명한 대로 눈앞에서 춤을 추다가 이내 사라지는 남녀무용수의 궤적을 그렸다면, 건축주는 건축가가 만들어낸 비정형의 유리관을 대중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로맹의 손을 택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건축가는 형태의 출처를 논리화하기 위해, 건축주는 결과물을 논리화하기 위해 각기 다른 대상이 필요했을 것이다. 전자가 건축가의 '사전동기(priori)'라면, 후자는 건축주의 '사후절충(posteriori)'인 것이다. 손의 모양을 한 구체적 형상을 건축형태로 변환한다는 것은 설계의도를 그만큼 대중에게 쉽고 명백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근육과 피부에서 시작해서 유리벽이 도출되었으니 '인용'이 선행되고 다음으로 '변형'된 것이다. 반면 발레의 유추는 극장이 갖는 구체적인 건축적 특징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글래스 파빌리온이 지니는 극적 요소는 무대장치나 객석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 발레리나의 추상적 공간관계에 있다. 즉 '구성'이 먼저이고 '정제'가 다음인 것이다. 전자의 건축이 표피적 형태에 바탕을 둔 '적유(simile)'라면 후자는 추상적 공간성에 바탕을 둔 '은유(metaphor)'이다.

손의 적유는 발레의 몸동작보다 대중에게 강하고 직설적으로 설득력을 갖는다. 로맹의 '성당'은 이미 고착화된 고유명사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는 불특정 발레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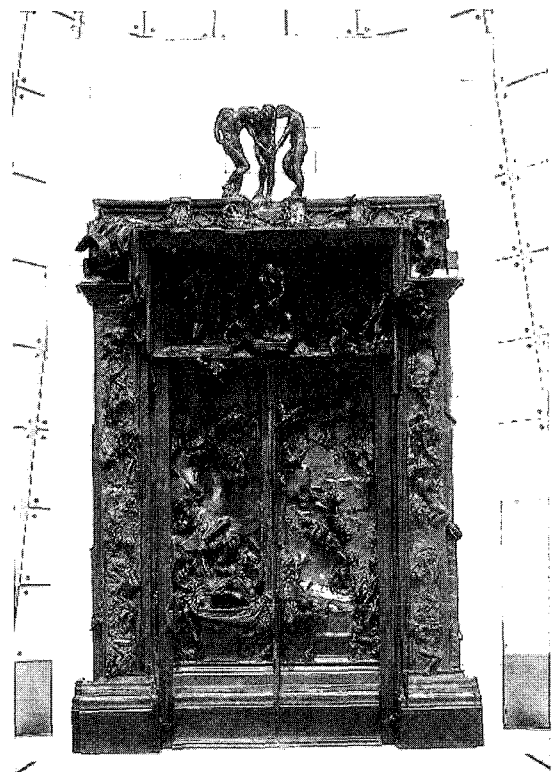


그림 55) 지옥의 문



그림 56) 야경(전경)

의 움직임은 아직 일반명사다. 비영속적 발레행위를 영속적 실체로 바꾸어 대중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성당의 직유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파될 수 있지만 발레의 은유는 관찰자의 자율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성당의 직유는 상업화된 아이콘을 전제로 하고, 발레의 은유는 이미지의 단편적 복제를 거부한다.

글래스 파빌리온의 모티브가 무용수인지 손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사전동기였는지 사후절충이었던지를 확인하는 것은 답이 먼저인지 달같이 먼저인지를 밝히는 것처럼 공허한 논쟁일지도 모른다. 건축가 Kenyon이 주장하는 무용수의 유추조차도 논리적 절충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안내책자에 실린 두 손의 유추는 건축물에 옷을 하나 더 입혀 보자는 시도 이상이 아닐지 모른다. 올림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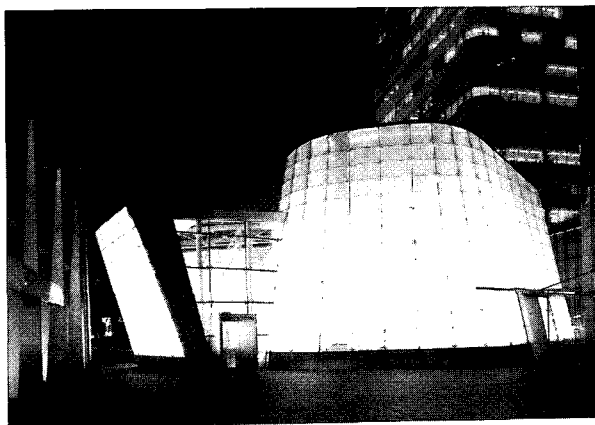


그림 57) 야경(주출입구)

주경기장의 모양을 전통 도자기에서, 월드컵 주경기장의 지붕을 돛대에서 착안했으니 하는 주장과 반론이 본질을 가리는 부차적인 이름붙이기에 불과한 것처럼 말이다.

#### 4. 로댕갤러리에서의 전시

로댕갤러리 기획전시실에서는 항상 새로움을 추구했던 작가 로댕의 정신을 따라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공간으로 조각, 설치미술과 같은 입체 작품 위주의 전시활동이 이루어진다. 개관 초기에 로댕갤러리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기획전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1 「사랑과 열정의 서사시 - 로댕과 지옥의 문」 전시기간 : 1999.5.14(금) ~ 9.12(일) 총 105일

국내 최초이자 세계 여덟번째로 건립된 로댕갤러리의 개관을 기념하고 로댕이 현대조각에 끼친 영향을 되새겨 보는 의미에서 기획된 개관기념전으로 로댕 평생의 역작 '지옥의 문'을 비롯, 그 작품과 관련한 청동, 대리석, 석고, 드로잉, 사진 등 총 86점이 전시되었다.

'지옥의 문'을 구성하는 작품들을 '에덴동산', '지옥과 저주', '작은가의 아틀리에'에 관한 3개의 주제로 구분하고, 각각의 작품을 통해 '지옥의 문'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창작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드로잉과 석고작업으로부터 청동숙작 및 완성작, 또는 대리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 4.2 「현대 조각의 거장 - 로댕과 만남」 전시기간 : 1999.9.29(수) ~ 11.14(일) 총 47일

로댕의 다양한 인물표현을 주제로 로댕갤러리의 글래스 파빌리온에 상설전시 중인 '지옥의 문'과 '칼레의 시민'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청동조각 29점과 단테의 '신곡'을 소재로 한 드로잉 35점이 전시되었다. 한 전시실은 '생각하는 사람', '세 망령', '여순교자' 등 '지옥의 문'에 관련된 작품들과 드로잉들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전시실은 '칼레의 시민'의 인물조각들과 '발작'등 로댕의 기념비 조각, 그리고 □□블랙□□드로잉이라 불리는 로댕의 독특한 드로잉들



그림 58) 권진규 '지원의 얼굴'



## 이 광 인

이 함께 전시되어 조각가 로맹의 종합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4.3 「새천년 특별기획 -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전시기간 : 1999.12.10(금) ~ 2000.02.27(일) 총 80일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호암미술관과 로맹갤러리가 준비한 특별기획전으로 □□회고와 전망'의 성격과 '한국적 정체성의 확인'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인물표현은 미술에서 중요한 주제이며 한국미술에서도 한국인의 생활과 사상과 감성이 잘 드러난다.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를 포괄하고 조각과 회화를 망라하는 넓은 범위에서 한국미술의 특징을 뚜렷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표현 미술품 약 200점이 전시되었으며, 작품들은 평면과 입체로 구분되어 평면은 호암갤러리에서, 입체는 로맹갤러리에서 전시되었다.

### 4.4 「김수자: 세상을 엮는 바늘」

전시기간 : 2000년 3월 24일 ~ 4월 30일 (38일간)

로맹갤러리 입구의 광장과 주변환경까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장면을 연출한 김수자 개인전에는 상파울로 비엔날레와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되었던 '떠도는 도시들 : 2727km 보따리 트럭'이 비디오 상영은 물론, 실제 보따리 트럭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함께 전시되어 첫 선을 보였다. 또한 해외에서 먼저 소개되어 호평을 받은 대규모 이불보 설치작품 '빨래터 Laundry Field'가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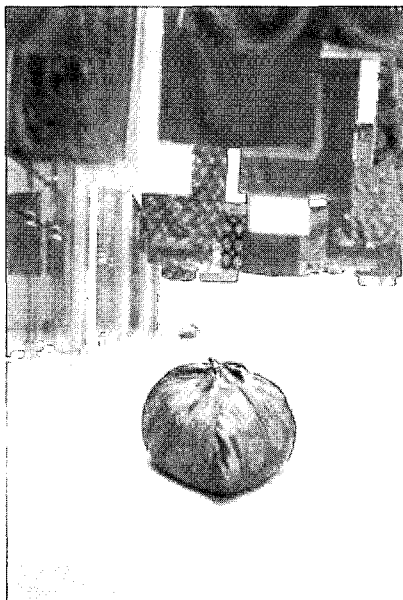


그림 59) 김수자 '보따리'

시 처음으로 설치되어 관람객들의ダイナミック한 공간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 5. 「임충섭: 빛의 건축」

전시기간 : 2000년 5월 18일 ~ 6월 18일 (32일간)

현대미술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작업하면서 끊임없이 한국 문화의 자연주의적 본질과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건축의 특성을 작품을 통해 시각화시키고자 노력해온 작가.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오랜 작품주제인 빛과 실 그리고 흙을 이용해 공간을 해석하는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수직수평의 기능주의적 현대문화를 곡선적인 한국적 자연주의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미래문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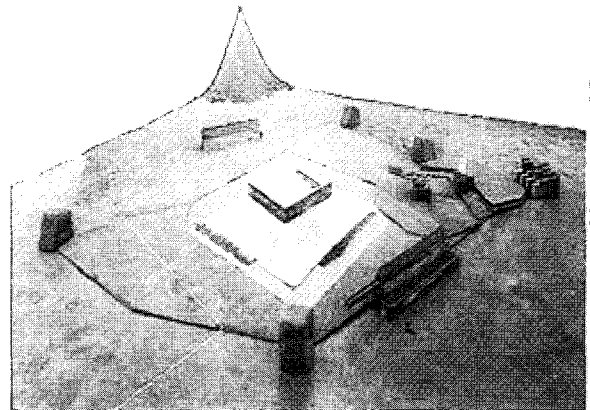


그림 60) 임충섭 '물매'

## 5. 맺는 말

로맹갤러리가 국내의 건축계에 던지는 여파는 대단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것이다. 프랑스 조각가 로맹의 대표적인 조각 작품, '지옥의 문'과 '갈레의 시민'을 상설 전시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그 건축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드물고 놀라운 일이다. 원래 옥외에 설치되어야 하는 로맹의 조각 작품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살리면서도,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적 재해로부터 작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 개의 조각품을 실내에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옥내와 같지 않은 실내, 즉 옥외와 유사한 환경적 특성을 갖는 실내가 절실히 필요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유리상자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벽과 천정이 온통 유리라는 단일 재료로 마감한 이색적인 건물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미술관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콘크리트로 뒤흔인 무미건조한 도시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활 주변에 새롭고 다양한 공간과 장소를 조성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삶을 보다 쾌적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로맹갤러리는 고가의 귀중품을 담아두는 보석상자가 아니라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터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The Master Architect SeriesII KPF, The Images Publishing Group, 1997
2. 삼성분관주변 리노베이션 보고서
3. (월간) 건축문화, 1999.9
4. (월간) 건축과 환경, 1999.6
5. (월간) 플러스, 1999.6
6. Auguste Rodin의 '지옥의 문'분석, 조상필, 홍익대, 1982
7. (Rodin) 인간박물관 : 로댕의 예술과 인생, 장운우, 이목구비사, 1995
8. 로댕갤러리 인터넷 사이트 : <http://www.rodin.co.kr>